

책과 함께 늙어가는 情念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인다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90년 현재 71.3세라 하니 2000년대에 전인구의 10%는 고령인구가 차지한다는 사실이 실감되기도 한다.

일본의 이른바 '실버(Silver)산업'이란 것도 이러한 노인인구의 잠재된 거대시장을 겨냥한 것인데 출판에선 일찍부터 그 시장에 뛰어들어 모양이다. 벌써 십여종에 이르는 잡지들이 최근엔 그 대상이 점차 중년층으로 확대, 다양한 체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반도서에서도 꽤 수준 있는 노인 작품을 비롯해서 에세이와 법률문제·건강·취미 등을 다룬 책들이 풍부하게 개발돼 있다는 소식이 다. 물론 이들 책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책과 활자크기에 신경을 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고령층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 서점의 서가 한 귀퉁이조차 채우기가 벅찰 정도의 책이 엉성하게 꽂혀 있을 뿐이다. 구미나 일본과는 달리 서점이 '젊은이들만의 공간'으로 되다시피해서 고령자 고객들의 모습을 찾지 힘들다는 것은, 이들을 이끌 만한 책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엔 얼마든지 '지적인' 노인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어쩌다 도서관엘 가보면 의외로 백발의 노인이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실 정년이 시작되는 55~60세의 노인은 '노인'이라 하기엔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지식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노인대학' 같은 곳에서 충족할 수 없는 잠재적 노인독자들의 욕구를 이제

는 생각해야 될 때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노인취향의 책이 어떤 내용이며 이들의 실질구매력이 어느 정도나 하는 상업성은 면밀히 계산해볼 필요는 있다. 얼마전 한 출판사에서 나온 「人生은 60부터」란 책은 고령자 대상의 일반도서로서 그 상업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日書번역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본문은 60세 이상에 가장 적합한 활자크기를 사용했습니다"는 활자감수자의 문구까지 밝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읽는 이'의 입장을 배려한 편집의 세심함은 돋보였다.

늙어가는 일이 공연하게 이뤄지진 않을 게다. 책속에서 '늙어가는 정념'을 가다듬을 수도 있다. 출판이 그 '정념의 場'을 마련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사실 모두 늙어가고 있지 않은가.

—김지원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84호 / 1991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憲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羲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亨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珍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吳
宋相庸	申福龍	慎錫廈	安秉水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炯勳
李相田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博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興鍾	鄭雲錫	鄭普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順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 이야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근거한 일련의 문예미학적 논의로 우리 독자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발터 벤야민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다양하게 해석된다. 인간성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한 혁명적 사상가로 수용되는가 하면, "모든 획기적인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보듯 지속적인 저항의 논리를 구사하는 좌경이론가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예민하고 섬세한 심미주의자, "나를 뜨겁게 하지 않는 학문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외친 학자 아닌 학자, 그리고 박물학적 관심의 수집가 등 여러가지 면모로 이해되고 있다.

벤야민이라는 한 인물의 수용상이 그렇듯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번호 「재미있는 책이야기」에서는 책 수집가로서의 벤야민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수집에 관한 한 강연」이란 글중 흥미있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반성완교수가 편역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민음사)을 저본으로 삼았다.

옛책은 수집가를 만나 재탄생한다 모든 책은 제각기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책 일반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를테면 「신곡」이나 스피노자의 「윤리학」, 아니면 「종의 기원」도 각각 자기 나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집가는 이러한 라틴어숙답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의 눈에는 책 그 자체보다는 각각의 '날권'이 운명을 갖는 것이다. 책 한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운명은, 그 책이 수집가와 마주친다는 점이다. 진정한 수집가에 있어 어떤 古本을 얻는 것은 그 고본의 재탄생에 맞먹는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작가들은 왜 책을 쓰나

책을 구입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그 책을 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중의 대다수는, 장파울의 여주인공인 부츠라는 가난한 여교사가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책의 도서목록에서 그녀의 마음에 드는 모든 책을 한권 한권씩 써서 마련한 큰 서재를 기억할 것이다. 작가들이란 책을 사지 못할 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 수는 있어서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것이 작가에 대한 좀 별난 정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수집가의 시각에서 말해지는 것은 모두 별난 면을 지니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 구입방법 중에서 수집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빌어서는 되돌려주지 않는 일이다.

다. 도서경매전도 좋은 책 수집의 기회 경매할 때 수집가는 또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경매목록을 읽는 사람은 책 그 자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책의 前 소유주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경매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그는 언제나 정한 머리를 가지고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경매에서 나올 앞서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입찰가격에 걸리는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통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원하고 원하던 책을 구하는 즐거운 순간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원하던 책이 다른 사람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시장의 한 구석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는,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동화에 나오는 왕자가 아름다운 여자노예를 사는 것처럼, 그 책에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책 수집가의 눈에서 보면 그의 서가의 어딘가에는 이를테면 모든 책의 진정한 자유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수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산

어떤 수집을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산이다. 왜냐하면 어떤 수집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집품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가 지닌 소유물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수집가의 자기 소장품에 대한 태도는 유산 상속자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언제나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중략)

수집이라는 현상은, 만약 그것이 그 주인을 잃게 되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비록 공적인 수집이 사적인 수집보다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적고 또 학문적으로 더 이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집의 대상이 제물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 수집에서이다.

수집가, 혹은 책벌레의 행복

책벌레라는 이름의 가명을 쓰고 미심쩍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큼 별볼일 없는 삶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사람만큼 쾌적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정신이 깊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정신에 의해 수집가는 사물에 대해 갖는 가장 깊은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소유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